

감정으로 보는 역사학 연구방법

- ▶ Jisoo M. Kim
-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 19세기 조선의 국가 법 사회
-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 2023.11.16

The History of Emotions

- ▶ Johan Huizinga's *The Waning of the Middle Ages* (1919) examined the emotional climate of the fourteenth and fifteenth centuries.
- ▶ Norbert Elias's *The Civilizing Process* (1939) took up the subject of emotional control.
- ▶ Lucien Febvre, in a series of essays first published in the 1930s and 1940s, called on historians to see human psychology not as universal and constant but as fluid and historically contingent. He told historians that their goal should be “to establish a detailed inventory of the mental equipment of the men of the time.” From there, “by dint of great learning, but also of imagination,” they would be able to “reconstitute the whole physical, intellectual and moral universe of each preceding generation.”

Lucien Febvre (1941)

- ▶ “the emotional life [is] always ready to overflow the intellectual life... [You might say:] The history of hate, the history of fear, the history of cruelty, the history of love; stop bothering us with this idle chatter. But that idle chatter... will tomorrow have turned the universe into a fetid pit of corpses.”
- ▶ He was calling for histories of so-called the “Dark Side” - hate, fear, cruelty, and love. He included love because it could easily fall out of bounds, to become passion and lust.
- ▶ Febvre argued that emotions were basic in that they brought people together in the first place. But they were primitive.
- ▶ For Febvre, emotions were not part of civilized life, however essential to its existence.

Peter Stearns and Carol Stearns

- ▶ “Emotionology”
- ▶ : “the attitude or standards that a society, or a definable group within a society, maintains toward basic emotions and their appropriate expression [and] ways that institutions reflect and encourage these attitudes in human conduct.”
- ▶ : Its emphasis is not on how people felt or represented their feelings but on what people thought about such matters as crying in public, getting angry, or showing anger physically.
- ▶ : It assumes that what people *think* about feelings they will eventually actually feel.
- ▶ : This emotionology belongs to the modern period, when advice manuals for the middle classes began.
- ▶ : Stearnses were picking up on some sociological theories of the 1970s and 1980s.

Social Constructionism (1970s)

- ▶ Emotions and their display are constructed, that is, formed and shaped by the society in which they operate.
- ▶ Strong social constructionists: there are no basic emotions at all
- ▶ Weak social constructionists (the majority): societies bend, shape, encourage, and discourage the expression of various emotions. This means every culture has its rules for feelings and behavior; every culture thus exerts certain restraints while favoring certain forms of expressivity. Emotions are created by each society, each culture, each community.

William Red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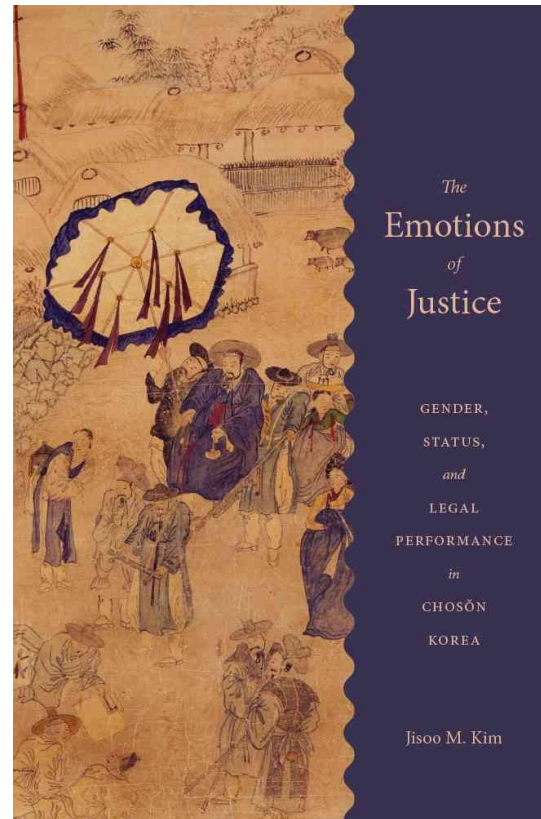
- ▶ “emotive” “emotional regime” “emotional navigation”
- ▶ “Emotives,” he wrote, “are themselves instruments for directly changing, building, hiding, intensifying emotions, instruments that may be more or less successful.”
- ▶ Additionally, he offered other terms which might be added to the scholarly lexicon. He described “emotional regimes” as the codes of expression and repression created and enforced by societies and governments;
- ▶ “emotional refuges” as those spaces—physical and social—which offer opportunities for emotional expressions not sanctioned by the dominant regime;
- ▶ “emotional liberty” as the freedom “to change goals in response to bewildering, ambivalent thought activations,” and suggested that different emotional regimes offered different degrees of emotional liberty (Reddy, 2001, pp. 105, 128–129).

Barbara Rosenwein: “emotional community”

- ▶ Rosenwein suggested that rather than there being a single set of rules that governed emotional life in a particular society, there were, at any given moment, multiple emotional communities. She maintained that every day and in all societies, individuals moved through various environments, each of which has its own guidelines, standards, and expectations for emotional expression. Among families, in churches, in taverns, at work, individuals displayed different styles, changing their affect as they moved between venues (Plamper, 2010; Rosenwein, 2002). She expanded on this theme in her book *Emotional Communities in the Early Middle Ages*. There she reconstructed how different social groups expressed grief, managed feeling, and regarded family relations (Rosenwein, 2006).

Wŏn / 冤

(grievance or sense of injustice)



Emotions and the Law

- ▶ Susan A. Bandes, *The Passions of Law* (1999)

“Emotion pervades the law” (1)

Susanne Karstedt et al., *Emotions, Crime and Justice* (2014)

The main trajectories of the return of emotions seem to have been embedded in the major movements that have changed the face of criminal justice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victims’ movement, restorative justice and the emergence of a highly emotional and mostly punitive public and political discourse on crime and justice. (p. 3)

Sara Ahmed's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s* (2004)

The Sociality of Emotions

She suggests that “emotions create the very effect of the surfaces and boundaries that allow us to distinguish an inside and an outside in the first place. So emotions are not simply something “I” or “we” have. Rather, it is through emotions or how we respond to objects and others, that surfaces or boundaries are made.” (10)

질투에서 폭력으로

- ▶ 질투와 폭력을 둘러싼 젠더 차이
- ▶ 혼인과 여성 규범, 신분 차이
- ▶ 폭력으로 이어진 처첩 간의 갈등
- ▶ 젠더화된 질투

Boris, Sokoloff, Jealousy: A Psychological Study, 1947

- ▶ 질투는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일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다양한 군상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다.

妬忌, 嫉妬

- ▶ 질투를 특별히 여성과 관련된 감정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방증
- ▶ 질투는 분노, 공포, 두려움, 불안감과 같은 다른 감정들과 달리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 감정
- ▶ 타인이 성취한 것 또는 소유한 것을 시기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상태
- ▶ 이성관계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하거나 친밀함을 표현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분노와 의심을 포괄
- ▶ 이 글에서는 질투에 대한 여러가지 함의 중에서 특히 혼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 양상에 초점

- ▶ 조선이라는 시대적 공간에서 여성의 질투는 하나의 악으로 규정되었고 칠거지악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 통제와 규율의 대상으로 위치지어졌다.
- ▶ 현대사회에서의 질투는 남녀의 구분 없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보편적 감정으로 이해.
- ▶ 전근대사회에서는 질투는 젠더화된 감정으로 존재.
- ▶ 법에도 (대명률) 이러한 시각이 투영됨.
- ▶ 부인이 첩에 대해 질투의 감정을 품는 것은 남편에 대한 순종을 거부한다는 뜻

- ▶ 조선에서는 여성의 질투를 다스리는 한편, 남편과 아내 간 위계질서를 질투라는 젠더화된 감정을 이용해 강화했다.
- ▶ 법적제도는 표면적으로 질투를 적절히 통제함으로 처첩 갈등없이 화목한 관계를 맺도록 돕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부장적 질서를 한층 강화함으로 상층/하층 여성간의 관계를 적절히 통제하는 효과를 발생시켰음.
- ▶ 이 글에서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는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 조선 사람들이 혼인과 가부장제와 유교문화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주목한다.
- ▶ 감정과 섹슈얼리티와 가정의 도덕성이라는 미묘하고 복잡한 의미망 속에서 조선 왕조가 어떤 형태로 개인의 사적 영역에 개입했는지를 살펴봄.

폭력으로 이어진 처첩 간의 갈등

- ▶ 번역의 문제
- ▶ Primary wives (처) and Secondary wives (첩)
- ▶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맥락을 검토해 볼 때, 첩을 “concubines”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봄.
- ▶ 감정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첩이 비단 이차적인 지위나 자격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부인은 아내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집안의 가사활동을 책임지고 있었지만 남편이 첩과 성적 상대로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을 때 본부인은 첩을 질투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응징하려는 경향을 보였음.

- ▶ 감정적인 면에서는 부인이 첩보다 항상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 ▶ 당시 사회적 의미의 첩은 아내로서의 의무나 역할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남성들에게는 성적인 대상이었고 그들에게 순종해야만 했던 상대였다.
- ▶ 첩의 경우 남성의 편의성에 맞춰 남성과 함께 이동할 수 있었고 그 역할도 상황에 따라 다변화되었다.
- ▶ 영어로 번역할때 “secondary wives” 보다 “concubines”가 더 적절하다고 봄.

- ▶ 서로 다른 신분의 여성들이 한 가구에 같이 살게 되었을 때 처첩간의 갈등은 심화되었음.
- ▶ 특히 노비 출신 여성이 첩이 되었을 경우 노비 출신 여성에 대한 위계적 억압과 차별로 인한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음.
- ▶ 부인이 첩에 대해 질투심을 갖고 첩에게 폭력적 행동을 가한 경우에 남편들은 아내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고 책임을 져야 했음.



▶ 1440년 음력 6월 10일 (세종 22년)

▶ 좌찬성 이맹균 (1371-1440) 사건

- ▶ 이맹균 사건에서 보듯 신분이 다른 여성들 간에 드러나는 긴장과 균열은 조선 사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 법망에서 사족 여성은 합법적 아내가 되었고, 첩은 제한적인 권리만을 갖고 있었으며 특히 노비 출신인 경우에는 학대나 수모의 대상이 되었음.
- ▶ 부인의 지위를 가진 사족 여성 역시 감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었는데, 남편이 주로 첩을 통해 성적 만족을 얻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경우, 첩을 질투하고 경멸할 수 밖에 없었음.
- ▶ 첩의 존재는 양반 여성의 자존감에 타격을 입히는 한편, 처첩간에 화목을 유지해서 부덕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
- ▶ 양반 남성들에게 있어 첩의 존재는 남성으로서의 자부심과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이었음.

- ▶ 축첩제를 승인했던 조선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남성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데 충실한 구조였음.
- ▶ 처첩 모두에게 질투심을 표시하는 것을 금하였지만, 그럼 감정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본부인이었음. 이러한 구조는 첩의 취약한 위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첩으로서 본부인에게 질투를 드러내고 도전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 ▶ 사족 여성들에게 정절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의 관료들은 하층 여성을 성적 욕망을 실현하는 대상으로 인식. 이는 혼인과 축첩이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음.

- ▶ 조선시대 가족 구조는 결국 젠더와 신분을 통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구축된 것으로, 혼인과 축첩제의 양립을 정당화하려는 노력은 젠더와 관련된 정책에 있어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중적-모순적 기준을 드러냈다.
- ▶ 조선 사회는 하층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규제를 약화함으로써 남성의 섹슈얼리티와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 주었고, 역으로 양반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억제함으로써 이들이 남편에게 평생 수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남성들의 성적 요구를 달래 주는 방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계적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갖고 있었다.
- ▶ 비록 조선왕조의 쇠퇴와 함께 유교의 혼인제도 또한 사라졌지만, 한국 남성들이 첩을 들이는 것은 20세기에도 지속되었다.

결론: 젠더화된 질투

- ▶ 한국어에는 “jealousy”를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들이 존재.
- ▶ 질투, 시기, 투기와 같은 단어들은 오늘날까지도 주로 여성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 단어가 질투의 감정이 포함하고 있는 역사성을 보여 줌과 동시에 그것이 젠더적 감정으로 이해되었음을 보여준다.
- ▶ 남성의 성적 욕망을 인정하고 실현하면서 동시에 여성 주체를 침묵시키려는 시도로 질투하는 역성에 대한 부정적 함의가 구성되었던 것이다.
- ▶ 여성의 질투가 함의하는 부정적 시선과 달리, 남성의 질투는 여성의 남편에 대한 순종을 우선시하는 논리로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되었다.

- ▶ 조선 사회가 축첩제를 공공연히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반 여성들은 첩이 가족이 되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길 거부하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첩을 학대하고 했다.
- ▶ 조선 정부는 양반 여성의 가내 영역에 깊숙이 개입하여 그들이 유교적 가부장제 성규범의 틀 안에서 함부로 첩을 홀대하지 않도록 막았다.
- ▶ 양반 여성들은 유교적 순종과 부덕을 실천해야 하는 여인상과 질투를 품은 사악한 아내라는 양극단을 오고 가며 불안한 줄타기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질투하는 여성들에게 도덕적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도록 하였지만 취첩한 남성은 그러한 면책으로부터 자유로웠다.
- ▶ 조선의 처첩제는 유교적 이상과, 법제와 사회 관습 사이의 균열에 자리한 긴장과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